

## 報 道 資 料

이 자료는 99년 1월 29일 조건부터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題目：韓國銀行의 輸出入銀行 出資 및 輸出入銀行의 外換銀行 出資

### 主要內容

- 政府와 韓國銀行은 99.1.28일 金融通貨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韓國銀行이 輸出入銀行에 7,000억원을 出資하기로 결정하였음
- 輸出入銀行은 이를 輸出入金融 財源으로 活用함으로써 輸出入支援을 擴大해 나가는 한편
- 동 자금중 3,360억원을 外換銀行에 출자하여 동행의 經營 正常化를 도모하기로 하였음

※ 세부내용：별첨

\* Internet ID([www.mofe.go.kr](http://www.mofe.go.kr)) PC 통신 ID(go EPIC)

報道資料 生産課：金融政策局 金融政策課 TEL：500-5341~3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

## 韓國銀行의 輸出入銀行 出資 및 輸出入銀行의 外換銀行 出資方案

---

□ 韓國銀行이 수출입금융의 확대등을 위하여 輸出入銀行에 7,000억원을 출자

- 취급품목의 확대, 기간제한의 완화등 輸出入銀行의 輸出入金融業務 擴大(98.9월)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追加資金造成이 필요

⇒ 한은 출자금중 3,640억원을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

- 外換銀行의 經營正常化를 위한 소요자금 1조원중 한국은행 지분율(98말기준 : 33.6%) 해당액을 輸出入銀行이 出資

⇒ 한은 출자금중 3,360억원을 외환은행에 출자

□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은 82.7월부터 자금조달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

- 금번 출자를 계기로 양 은행이 수출입금융 자원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의 業務協約締結을 보완·발전

## < 参 考 >

### 1. 出資의 效果

#### ☐ 수출입은행

- 자본금의 확충(16,758억원 → 23,758억원)으로 안정적인 수출입 금융 재원 확보
- 자본금 확충에 따라 차입 및 보증여력 확대
  - \* 차입한도 : 자기자본의 30배, 보증한도 : 자기자본의 10배
- BIS비율 상승(16.16% → 20.42%)으로 대외신인도 제고
- 자금조달 코스트의 인하로 지원금리의 추가인하 여력 확보
  - \* 수출입은행 조달금리 : 평균 6.5% 수준(잔액기준)
- 외환은행과 업무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수출입금융지원 활성화등
  - 외화 여신한도 제공, 수출입금융 채권의 판매 대행
  - Commerz Bank의 자본조달 능력을 활용한 차입선 다변화등

#### ☐ 외환은행

-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를 계기로 총 1조원\* 수준의 자기자본확충이 이루어짐으로써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8.12말 대비 2.5%p 개선되어 은행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
  - BIS비율 : 8.0%(98.12말 추정) → 10.5%(출자후)
  - \* 수는 3,360억원, Commerz 2,600억원, 임직원 1,000억원, 기타 3,040억원
- Commerz Bank의 추가출자등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가능
  - \* 지분구성(98말) : 한국은행 33.6%, Commerz 29.7%, 기타 36.7%

## 2. 推進日程

☐ 금일(99.1.28)중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의결

○ 수출입은행 출자는 99.2.1일 가능할 전망

☐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출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

## 3. 法的根據

☐ 한은의 수은 출자근거 : 수출입은행법 제4조

○ 제4조(자본금)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으로 하고, 정부·한국은행·한국산업은행·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,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,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.

☐ 수은의 외환은행 출자근거 :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

○ 제20조의2(법인에 대한 출자등)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조사·연구 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